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박상언^{1*}, 김권중², 공정현³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연세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³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Study on the Prejudice, Social Distance and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Sang-Un Park^{1*}, Kwon-Jung Kim², Jeong-Hyeon Kong³

¹Ph.D Student in Nursi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Yonsei Severance Hospital Nursing Service

³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논문은 노인을 돌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에 대해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r=-.171$, $p=.040$), 사회적 거리감과는 ($r=.387$, $p<.001$)정적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은 정적 상관관계($r=.171$, $p=.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간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별 간호학생의 차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nursing students' broad understanding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y examining basic data on prejudice, social distance and behavior for nursing students who should play a key role in caring for the elderly. We want to find a way to implement it.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survey of 145 nursing students located in J-city, Gyeongnam, and the IBM SPSS 21.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o summarize the study results, the subject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r=-.171$, $p=.040$),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distance($r=.387$, $p<.001$). Relationship, social distance and prejudice toward the elderl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r=.171$, $p=.040$). Prejudice toward the elderly, social distance, and positive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re important factors for nursing students who should play a key role in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Therefore, a study on differences among nursing students by reg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 Words Prejudice, Social distance, Behavior, Older adult,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치

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전인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인 면과 인격적 품위 등 모든 상황을 돌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인 문제에 동참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3-4].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

*Corresponding Author : Sang-Un Park(Ph.D Student in Nursi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tkddjs3@naver.com

Received July 09, 2022 Revised July 12, 2022 Accepted July 22, 2022

식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다.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 동반으로 인해[5]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6].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차별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7]. 이러한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행동들은 미래의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의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노인 편견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한 사안이다[8].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적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속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친근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9].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10]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의 전인적인 건강관리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에 대해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총 145명으로 이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소 인원은 115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상자는 최소 인원

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편견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 척도는 Won[10]이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척도이다. 19문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Cronbach's alpha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2.3.2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ong 등[11]이 Westie[12]와 Na와 Chung[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사회적 거리감 도구(social Distance Scal)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거리감(대상에 대한 신체적 교섭의 허용정도)과 대인적 거리감(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대상에 허용된 친근성)으로 총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거리감은 Westie [12] 의 161개 문항 중 총 6문항이며, 대인적 거리감은 Na와 Chung [13] 이 직업 계층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17개 문항 중 각 문항의 척도와 의미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6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평균 수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estie[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2.3.3 노인에 대한 행동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행동 측정은 Won[10]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17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Won[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에게 유인물과 구두 설명을 통해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간호학생 160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의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 145명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5에 양측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3. 결론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20대로 평균 22.28 ± 2.29 이었으며, 성별은 남 22.8%(33명), 여 77.2%(112명)으로 대상자 중 여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년은 저학년이 43.4%(63명), 고학년이 56.6%(82명)로 고학년이 더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31.7%(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한 곳으로는 중소도시 45.5%(66명), 농어촌 40.7%(59명), 대도시 13.8%(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동거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90.3%(131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노인환자를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5.9%(815명)으로 더 많았으며,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은 49.0%(71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노인에 대한 흥미는 없다 9.7%(14명), 많다

가 35.9%(52명), 중간 54.4%(79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33(22.8)
	Female	112(77.2)
Year	Lower grade	63(43.4)
	Upper grade	82(56.6)
Age		22.28 ± 2.29
Religion	Yes	46(31.7)
	No	99(68.3)
Place of growth	Major city	20(13.8)
	Medium-sized cities	66(45.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59(40.7)
Three generation	Yes	14(9.7)
	No	131(90.3)
Nursing experience for elderly patients	Yes	81(55.9)
	No	64(44.1)
Thinking about nursing for the old adults	Good	71(49.0)
	Dislike	4(2.8)
	Nothing to do with	68(46.9)
	Etc	2(1.4)
Interest in old adult's problem	Not	14(9.7)
	Medium	79(54.4)
	A lot	52(35.9)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은 4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1.79 ± 0.43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만점에서 평균평점 3.34 ± 0.43 점, 노인에 대한 행동은 4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평점 3.62 ± 0.32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prejudice against the older adult, social distancing toward the older adult, and behavior toward the older adults (N=145)

Variables	Min	Max	Range	M±SD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1	2.95	1-4	1.79 ± 0.43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1.33	4.25	1-5	3.34 ± 0.43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1.89	4	1-4	3.62 ± 0.3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은 학년($t=4.03, p=.009$), 노인환자 간호 유무($t=2.35, p=.020$),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F=4.42, p=.005$), 노인에 대한 흥미($F=4.36,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노인환자 간호를 한 경험이 없을 수록,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이 싫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노인에 대한 흥미($F=3.182, p=.04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느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은 학년($t=5.86, p<.001$), 종교($t=-1.69, p=.049$), 성장한 곳($F=4.21, p=.017$), 노인과 동거 유무($t=1.99, p<.048$)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F=9.90, p<.001$), 노인에 대한 흥미($F=9.2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고학년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농어촌 지역일수록, 노인과 동거하고 있을경우, 노인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 간호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해 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prejudice, social distancing, and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N=145)

Variables	Categories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M±SD	t/F(p)	sheffe	M±SD	t/F(p)	sheffe	M±SD	t/F(p)	sheffe
Gender	Male	1.85±0.46	.90		3.34±0.52	-0.04		3.59±0.32	-0.52	
	Female	1.78±0.43	(.368)		3.34±0.40	(.967)		3.63±0.31	(.602)	
Year	Lower grade	1.67±0.42	4.03		3.39±0.49	1.24		3.71±0.22	5.86	
	Upper grade	1.37±0.00	(.009)		2.75±0	(.299)		4.00±0.00	(.001)	
Religen	Yes	1.86±0.45	1.19		3.29±0.39	-.928		3.54±0.41	-1.69	
	No	1.76±0.43	(.238)		3.36±0.44	(.355)		3.66±0.26	(.049)	
Place of growth	Major city ^a	1.81±0.38			3.43±0.31			3.56±0.28		
	Medium-sized cities ^b	1.79±0.47		0.02	3.27±0.45	1.59 (.207)		3.56±0.37	4.21 ⁺	
	Farming and fishing village ^c	1.79±0.41	(.982)		3.38±0.43			3.71±0.24	(.017)	b<c
Three generation	Yes	1.62±0.46			3.49±0.42	1.44		3.78±0.20	1.99	
	No	1.81±0.43	(.110)		3.32±0.43	(.154)		3.60±0.32	(.048)	
Nursing experience for elderly patients	Yes	1.87±0.44			3.30±0.37			3.56±0.35		
	No	1.70±0.41	2.35 (.020)		3.39±0.49	-1.27 (.206)		3.70±0.24	-2.82 (.006)	
Thinking about nursing for the old adults	Good ^a	1.69±0.42			3.39±0.41			3.69±0.28		
	Dislike ^b	2.28±0.57			2.90±0.53			2.92±0.76		
	Nothing to do with ^c	1.88±0.41		4.43 (.005)	3.31±0.43			3.58±0.26	9.90 ⁺	
	Etc ^d	1.53±0.15			3.54±0.06			3.62±0.32	(<.001)	a,c,d>b
Interest in old adult's problem	Not ^a	2.05±0.41			3.08±0.65			3.30±0.52		
	Medium ^b	1.82±0.42		4.36 ⁺	3.34±0.36	3.182 (.044)		3.63±0.26	9.278 ⁺	
	A lot ^c	1.68±0.43	(.014)	a>c	3.34±0.43			3.69±0.27	(<.001)	a<b<c

†; sheffe test

3.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 간의 관계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r=-.171$, $p=.040$)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과($r=.387$, $p<.0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은 양적 상관관계($r= .171$, $p= .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 social distancing toward the elderly,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N=145)

Variables	Prejudice toward Older Adults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Behavior toward Older Adults
Prejudice	1		
Social distancing	-.171 (.040)	1	
Behavior	-.589 (<.001)	.387 (<.001)	1

4. 논의

2021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16.5%에 달하며, 2025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로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28년에는 국내 거의 모든 지역이 초고령화가 된다고 전망된다[1]. 이에 따라 노인의 질병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진단,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는 간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을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며, 이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 인해 간호학생 대상 노인 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의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 1.79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원영희[7]의 연구결과 2.02점보다 낮았다. 노인의

문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적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며, 많은 사람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의료에서도 노인에 대한 많은 편견과 그릇된 생각이 있다[14]. 이러한 노인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차별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7].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은 노인의 관리와 보살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노인편견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편견 감소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교육,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노인과 직접적인 접촉 및 노인의 존엄성 강조 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15].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34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Ha & Park[16]의 3.98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나[9], 치매노인 대상자보다 일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덜 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적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속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근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9].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노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62점이었으며 이는 Kim 등[17]의 1.35점, Lim[18]의 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선행연구 대상자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노인을 위해 핵심적인 간호 중재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요소라 생각된다.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19] 노인유사체험 등 노인이 되었을 때의 신체적 불편감과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2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편견 정도는

학년, 노인환자 경험,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노인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편견 정도가 높았으며, 노인간호에 대해 싫다고 생각할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과 일치하였다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는 학년, 성장한 곳, 노인과 동거, 노인환자 간호경험,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성장한 곳이 농촌일수록, 노인과 동거한 경우, 노인환자 간호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간호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흥미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 등[17]의 연구에서 학년, 노인과 동거한 경우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의 차이가 없는 것과, Lim[18]의 연구에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노인과 생활한 경험, 노인환자 간호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는 연구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 ($r=-.589$, $p<.001$),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양적 상관관계($r=.387$, $p<.001$), 노인에 대한 편견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부적 상관관계($r=-.171$, $p=.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직접적으로 돌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공감 형성을 위한 노인 교육과정 개발 및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 감소,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긍정적인 행동이 향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행동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남지역 J시에 소재한 일부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5월 한달간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늘어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늘어날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간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J시에 소재한 일부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지역별 간호학생의 차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Daejeon: Office of Statistics. 2021.
- [2]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Examin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jointly, 'Annals of Health Insurance Statistics in 2016', 2016.
- [3] H-J. Park, and J-S. Kang, 'Degree of Delegation of Nursing Practices of Nursing Hospital Nurses, Relationship to Nursing Professions and Turnover Intentions'. Korean Gerontology, vol.39, no.4, pp.903–920, 2019.
- [4] Kim Gui-bun, Lim Jung-bin, and Seok So-hyun. 'A Survey of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vol.13, no.1, pp.13–21. 2007.
- [5]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N.Y. Doubleday, 1954.
- [6] Jones.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J:

- prentice Hall, 2002.
- [7] Won, Y. H. 'Factors influencing elder bias'.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pp.275–296, 2003.
- [8] Lee Jae-mo.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of Korean Japanese college students towards the elderly'. Japanese Literature, vol.44, pp.325–341, 2009.
- [9] Kim, D. R., Lee, S. Y., Lee, S. H., Lee, Y. J., Lee, Y. J., Lee, W. K., and Lee, Y. J.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ing 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Ageis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7, pp.373–381, 2019.
- [10] Won Young-hui. Development of a Behavioral Scale for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pp.275–296, 2003
- [11] Song KW, Kim BJ, Hong YO and Lee HK. 'A study on social distance toward members of stigmatized social group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vol.3, no.1, pp.123–141, 1997.
- [12] Westie FR. 'Negro-white status differential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7, no.5, pp.550–558, 1952.
- [13] Na GC and Chung GS. 'Subjective social distance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strat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2, 109–133, 1988.
- [14] Kim Chul-ho. 'Features of geriatric diseases'.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vol.71, no.2, pp.844–7, 2006.
- [15] Jang Se-chul and Kim Kyung-min. 'A Study on Prejudice Against the Elderly i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Japanese Literature, vol.80, pp.207–226, 2018.
- [16] Ha, J, and young Park, J.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0, no.4, pp.269–269, 2019.
- [17] Kim, S. O., Oh, H. S. and Wang, M. S.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63–170, 2016.
- [18] Lim Yuji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college student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vol.5, no.2, pp.71–81, 2017.
- [19] Jang, K. and Heo, S. E.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3, pp.185–194, 2020.
- [20] Baik, S. H.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application of a senior simulation for changing to a positive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1, pp.5–12, 2007.